

[2023 세계 행복지수] 한국의 행복지수, 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33위) 유지!

-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매년 국제 행복의 날(3월 20일) 즈음에 세계행복보고 서를 발표한다. 올해도 발표 결과를 살펴보면, 전 세계 146개국 중 한국은 52위로 중상위권에 랭크됐고 이를 OECD 38개국 기준으로 재집계하면 OECD국가 중 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 OECD국가를 기준으로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가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한국은 35위에서 2단계 상승했다.

[표] OECD 국가별 세계행복지수 순위 (2023 vs 2024)

국가	순위	
	2023	2024
핀란드	1	1
덴마크	2	2
아이슬란드	3	3
스웨덴	6	4
이스라엘	4	5
네덜란드	5	6
노르웨이	7	7
룩셈부르크	9	8
스위스	8	9
호주	12	10
뉴질랜드	10	11
코스타리카	23	12
오스트리아	11	13

국가	순위	
	2023	2024
캐나다	13	14
벨기에	17	15
아일랜드	14	16
체코	18	17
리투아니아	20	18
영국	19	19
슬로베니아	22	20
미국	15	21
독일	16	22
멕시코	29	23
프랑스	21	24
에스토니아	25	25
폴란드	30	26

국가	순위	
	2023	2024
스페인	26	27
칠레	28	28
이탈리아	27	29
슬로바키아	24	30
라트비아	31	31
일본	32	32
한국	35	33
포르투갈	34	34
헝가리	33	35
그리스	36	36
콜롬비아	37	37
튀르키예	38	38

※출처: SDSN(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2024 세계 행복보고서, 2024.03.20.

^{*}갤럽의 월드폴 조사를 기반으로 각 국가별 1000명 대상, 자신의 주관적 안녕 수준을 0~10점까지 점수로 나타낸 결과의 최근 3년치(2023년: 2020~2022, 2024년: 2021~2023) 평균값임.

^{*}전 세계 146개국 통계 자료 중 OECD 국가만을 선별하여 재분석한 것임